

國際會議에 다녀와서

## 2001년의 生活과 職場을 위한 都市空間

金 源 서울市立産業大學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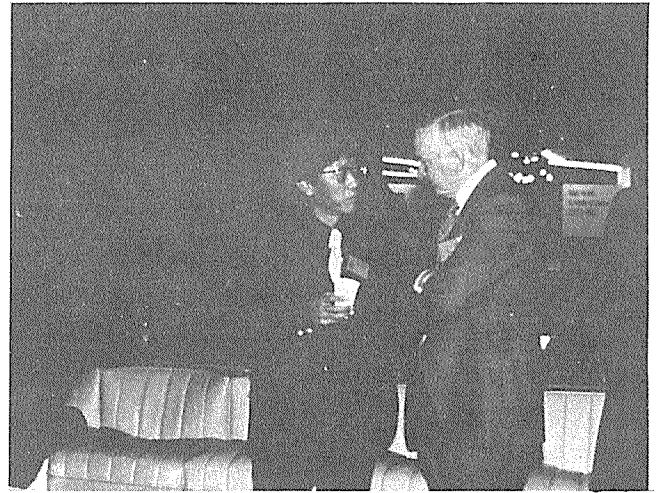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五日間에 걸쳐「高層빌딩과 都市生活」(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에 관한 國際會議가 파리의 UNESCO 本部 會議場에서 개최된 바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번 會議에 처음으로 필자가 다녀온바 있다.

會議의 主題는 「2001년에 있어서 生活과 職場을 爲한 都市空間」(2001: Urban space for life and work)이었으며, 61個國에서 250余名의 專問家가 한자리에 모여 10個 分科로 나누어 五日間에 걸쳐 進지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었다.

會議는 The Council on Tall Building and Urban Habitat에서 주관했으며 UNESCO는 지난번 UN Van couver 會議에서 채택된 「人間定位에 관한 諸原則」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번 會議를 支授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UNESCO는 場所와 會議 期間동안의 案内 및 同時通訳 등 어려운 지원을 하게 되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進행된 바 있다.

이번 國際會議를 주관한 The Council on Tall Building은 非營利團體(Non-Profit organization)로서 1969年 美國의 建築家, engineer, 都市計劃家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이래, 1976年 現在 70個國에서 2,000名의 會員을 갖고 있는 國際的인 學術團體이다. 本部를 펜실바니아에 있는 Lehigh University에 두고서 그동안 30個 會員國에서 38회에 걸쳐 地域會議를 개최한바 있다. 이번 分科會議는 그동안 各地域 會議에서 논의되었던 2001年代에 있을 都市空間의 高層化와 이에 따른 交通, 公害 및 갖가지 都市生活을 위협하는 要素들을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에 대한 問題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集約 정리해 보는 계기가 된 셈이었다.

會議첫날을 관례대로 UNESCO 事務總長의 開會辭(opening speech)와 The council on Tall Building의 의장인 Beedle 博士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곧 이어 第一分



Canbera 計劃에 參席한바 있는 Mr. Mclean 氏(호주대표)와 함께

科의 都市成長要因에 관한 論文發表가 있었다. 下午會議에선 都市民의 利益保護(기술, 경제적側面)에 관한 發表가 있었고, 계속해서 午前, 午後發表 論文에 대한 論評과 floor 질문이 있었다. 會議進行 規定에 따르면 論文發表는 20年間, 論評은 10年 그리고 floor 질문은 5分間으로 정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

會議첫날 저녁에는 參席者會員을 爲한 公式 리셉션이 있었다. 會議가 進행되는 도중 「커피·타임」이 있어서 자유로히 對話를 나누며 이른바 民間外交의 機會가 있었다. 필자는 호주代表와 印度代表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나눈 가운데 한결같이 韓國의 經濟力신장에 대해 격찬을 받았고 호주代表는 자기집에서도 韓國製TV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會議 二日째는 都市民의 수요요구와 期待에 관해서 下午엔 都市民의 利益保護(社會 經濟的側面)에 관해서 論文發表가 각각 있었고, 會議 三日째는 都市서비스, 土地利用, 交通 및 에너지 保護에 관해 發表가 있었다. 會議 四日째는 都市生存, 都市開發패턴에 관해서, 그리고 會議마지막 날에는 都市高層빌딩의 역할 및 都市住宅에 관해 論文發表가 있었다.

이번 會議의 主題가 의미하듯이, 2001년의 都市는 人口增加와 土地의 制限法으로 인해 필연코 高層化, 立体化된다고 보는데서 出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論爭들이 많이 나왔다. 2001年代는 우선 建築技術面에서 기계화가 불가피하며 새로운資材의 계속적인 生産, 복잡한 재료들의 상호작용, 人間의 知的, 物的水準의 向上에 따른 建築資材의 質的變化 추세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問題들은 人間으로 하여금 컴퓨터活用과 体系的接近方法(System Approach)을 導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engineer, architect 그리고 planner들이 總合되어 있는 Teamwork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大韓建築士協會誌 通卷第107号

다른 한편 高層빌딩과 機械化추세를 긍정하면서도 社会分理學者(Zeller, 佛國)는 그러한 数学的 論理에 맞은 体系的接近方法이 2000年代의 都市人間들의 모든 問題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의 主張에 의하면 人間은 본래 자기 자신에 관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문제에 관해 생각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 人間을 그 対象으로 利用하는 것은 그 결과가 심히 위험스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그와같은 기계化 以后엔 우리는 결국 非機械化시대로 갈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歷史를 돌이켜 본다면 現代都市보담 中世의 城郭都市가 오히려 우리의 都市生活을 더 편리하게 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2000年代를 向해서 우리의 都市는 高層化되고 있고, 앞으로 그 속도가 점차 加速化될 것을 부인 못하는 現시점에서 都市의 配置, 建물의 設計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한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첫째, 高層건물간의 充分한 空氣의 流通

둘째, 高層건물간의 充分한 open Space

셋째 : 高層건물간의 充分한 日光

넷째 : 高層건물의 火災예방

다섯째 : 高層건물의 난방, 냉방문제

여섯째 : 高層化에 따라 發生하는 交通處理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高層빌딩 專門研究 기구가 必要하게 될 것인데 이번 파리 會議에서는 各國의 大都市에서 당면할 그와같은 문제를 돕기 위해 종합적인 冊字를 今年봄내로 發刊기로 예정하고 있다.

會議에서는 2001年の 增加人口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人口 100萬元員의 Ring City를 設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서 관심을 모으는게 화란代表(Maltans)는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提示하고선, 모든 건물은 高層化하고, 充分한 空間, 離棟간격을 두고, 건물의 1層은 완전히 步行者가 안전하게 活動할 수 있는 Promenard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러한 2001년의 Tall building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가지의 目標가 充足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첫째는 団地計劃을 잘하여서 都市人 상호간의 접촉(social intevaction)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둘째는 환경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되어야 하고, 셋째는 高層빌딩에 대한 人間의 理解를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五日간의 Tall building 會議가운데 가장 필자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會議三日째의 高層빌딩의 交通 및 에너지 保護문제와 마지막날의 高層빌딩의 역할이었다. 高層빌딩은 에너지를 電氣의 無限定한 공급을 전제로 하지 않고선 不可能한 것인데, 우리의 地下資源은 限定되었다고 보아, 양자간의 문제는 상치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즉 都市는 高層化될 것이 中然的인데 電氣는 限定的이다 여기에서 많은 專門家들은 大陽熱(solar system) 利用에 大韓建築士協會誌 通卷第107号

대한 관심을 겹주해서 高層빌딩들이 大陽熱을 開發 活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얼마 前까지만 해도 大陽熱利用문제는 꼭 요원한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오일파동 以后 美國의 個人單獨住宅에서는 solar system을 利用, heating, cooling을 하고 있으며, 高層건물에서도 이를 利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 Tall Building 會議에서 가장 印象 깊었던 것은 필자가 國家代表로서 소규모 國家代表會議에 參席한 것이다. 會議 이틀째 議長으로 부터 필자더러 韓國을 代表하여 國家代表會議에 참석해 달라는 청을 받고 이날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會議의 目的은 會議參席國들 끼리 高層빌딩에 관해 실시하고 있는 活動, 정보를 상호 교환하자는데 있고, 앞으로 있을 會議에서 刊行될 Tall Building Information Book에 관해 論議하기로 되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韓國에는 高層빌딩이 전혀 없고, 이에 대한 資料가 빈약한 것을 보고, 필자는 發言權을 얻어 세가지점에 관해 설명을 한바 있다.

첫째, 서울에서만도 10層以上の 건물이 數十이 넘고 32層빌딩도 몇개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한 data는 本人이 귀국하는 즉시 市當局과 상의하여 作成해 주겠으니 다음에 나올 資料에 반드시 反映토록 했으며,

둘째는 都市空間이 高層化됨에 따라 發生되는 交通問題, 주차장 해결등에 관해 서울시는 물론 韓國에는 전혀 活動 정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필자는 이를 강력히 不認하고, 현재 市當局에서 國際企業人들과 건물주들로 구성된 協議體에서 活潑히 논의되고 있고, 각종 規定을 대부 修正. 이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都市高層빌딩에 관해 國際會議를 열 경우 The Council에서 적극적으로 支援해 주겠다고 하여 필자는 대담하게도 市立産業大學에서 이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불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까지 30個國에서 36회에 걸쳐 地域會議를 열고, 두번에 걸친 國際會議를 했으나, 한번도 韓國이 參席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담한 說明 반박을 한 필자를 보고 온 會議場은 한결 숨이 죽은듯 듯 조용했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것을 직감했을 때 한편 흐뭇한 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會議가 끝난 후 많은 國家代表들이 앞을 다투어 나에게 와서 人事를 나누었으며 全体本會議가 끝나던 날 필자는 議長을 찾아가서 울서 갖고 온 英文冊字를 증명하고 明年 카이로 會議때 다시 만나자고 굳은 악수를 나눈뒤 자리를 떴다. 지금도 그당시를 회상하면 우리는 자기 전공분야를 따라 國際會議에 반드시 參席해야 한다고 느낀것은 學門에는 孤立이 있을 수 없다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五日간의 값진 경험을 한 후, 필자는 Amsterdam FrankFurt, London, Rome Hongkong, Tokyo 를 둘러보고 20余日만에 귀국했다.